

2024 ARTIBUS CANIBUS



4 (사)캔파운데이션
ARTBUS CANbus since 2009~

프로그램 소개

6 박주영
<바람의 마음>

16 신혜정
<똥굴 똥굴 또로록 내 몸이 왁자지껄>

24 2024 ARTBUS CANbus 참여 후기
-박주영 작가
-신혜정 작가
-참여자

28 참여 작가 CV

30 프로그램 참여기관(다운복지관)

31 크레딧

(사)캔파운데이션은 시각 예술 분야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예술을 통한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전시 공간인 <MO BY CAN>과 <오래된 집>, 국내 레지던시인 <명륜동 작업실>을 운영하며, 작가 발굴과 창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교류 전시, 아트버스 캔버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술의 문화 교류와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된 아트버스 캔버스 프로젝트(ARTBUS CANbus)는 소외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 있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예술 창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작가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캔파운데이션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서 창출된 콘텐츠 사업 수익을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원함으로써, 예술계 안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대미술 작가들은 예술 창작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은 예술을 매개로 더 넓은 사회적 연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RTBUS CANbus> (아트버스 캔버스) 프로젝트는 200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5년 째 문화 소외 지역과 특수 상황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캔파운데이션이 지원하는 예술가들은 아트버스를 통해 참여자들과 창작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참여자들은 ‘작가의 눈’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하며 더 밝고 창의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자기표현 능력을 기르고, 예술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에는 (재)청암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박주영, 신혜정 작가와 함께 다운복지관 중장년 교실에서 예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개월 동안 총 8회간 진행된 교육 활동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캔파운데이션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인 <ARTBUS CANbus>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 예술의 가치를 체험하고, 예술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사)캔파운데이션

박주영 <바람의 마음> 2024.07.23.-2024.08.27. 다운복지관 중장년 교실

박주영 작가와 함께한 <바람의 마음> 수업에서는 ‘바람’의 중의적 의미(Wind/Wish)를 탐구하며, 각자의 소망과 마음을 동양화 재료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먹과 한지의 물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수묵 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패턴이 담긴 화첩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식물을 관찰하며 실루엣과 그림자를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넘어 각자의 독특한 감성으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혜정 작가와 함께한 <똥굴 똥굴 또로록 내 몸이 왁자지껄>에서는 ‘나의 몸’을 통해 주변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손의 의미와 역할에 집중하며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각자 예쁘게 꾸민 낭만 모자를 쓰고 산책을 하거나, 서로 손을 맞대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등 참여자들은 이번 수업을 통해 완성된 작품 이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신혜정

**<똥굴 똥굴 또로록
내 몸이 왁자지껄>**

2024.09.03.-2024.10.08.

다운복지관 중장년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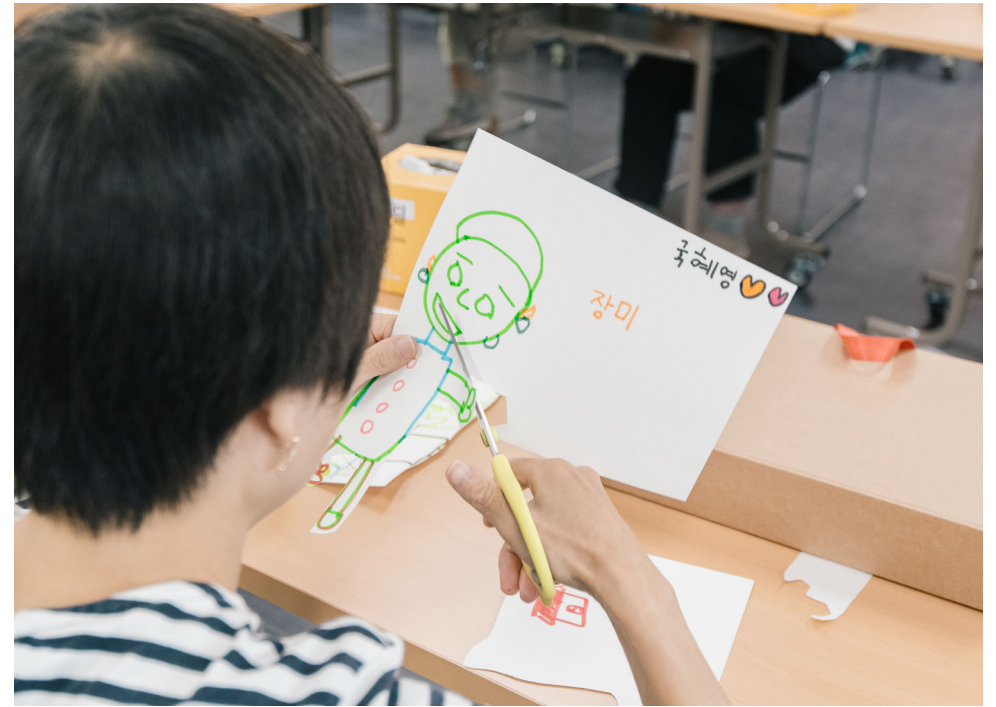
다문화지원

아트버스 캔버스

<프로그램>

함께 행복 포로록 내 품이 약자지않

작가: 설치미술





2024 ARTBUS CANbus

참여 후기

작가: 박주영

<2024 ARTBUS CANbus>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작업 활동 가운데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 기대가 되면서도, 그간의 강의 경험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별한 수업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히기 조심스러운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여름의 수업을 돌이켜보는 지금-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 하면서의 고민, 첫 수업을 앞두고서의 긴장은 괜한 기우였음을 다시 떠올리게 되네요.

다운복지관 중장년 교실 참여자분들과 함께했던 ‘바람의 마음’ 수업은, 전통 회화의 기본 재료와 기법, 양식을 통해 자신만의 회화적 언어를 찾아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묵 기법과 패턴, 화첩 제작, 실체와 그림자의 실루엣, 접선-부채 등의 주제로 총 4회 수업을 준비하며 참여자분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한편, 익숙하지 않은 재료와 낯선 감각에 대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을지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순수한 표정으로 매 수업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집중하던 참여자분들의 모습, 놀라운 결과물들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 덕분에 저 역시 더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상이 환기되는 순간의 감정과 상상, 생각들을 획(劃)의 조형 언어와 중의적 의미의 바람(wind/wish)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이나 말로는 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담아내는 작업이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어떤 바람이 되기를 바라며, 작품을 통한 소통의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곤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화적 감성을 나누고 조형적 언어로 대화하는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만 유익했던 시간이 아닌, 참여자분들께서도 지난여름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수업을 위해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2024 ARTBUS CANbus

참여 후기

작가: 신혜정

예술을 매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삶의 모습을 나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다운복지관 중장년 수업을 하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술가, 예술 교육가로 활동하며 자주 머릿속을 맴돌았던 (조금 과장을 보태 말하자면) 예술의 순기능이 있다면 이런 만남과 교감이 아닐까 이 글을 쓰며 생각합니다.

함께 활동할 미술 재료를 받고 호기심에 찬 눈빛을 보여주셨을 때, 무심한 듯한 대답과는 다르게 눈은 반짝이며 수업에 참여해 주셨을 때, 이 수업을 통해 강사인 제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미리 알았습니다.

올해 초 다운복지관 중장년 분들과의 수업 제안을 받고 저는 기대감과 걱정 그리고 어떤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함께 하는 네 번의 수업이 참여자분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면 좋겠다.’, ‘익숙한 테두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공간, 신체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다양한 재료를 다뤄보고 제작하는 활동이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는 생각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키트를 같이 만들고, 서로의 얼굴을 한 부위씩 그려주며, 손으로 할 수 있는 손 포즈도 짝과 같이 만들어 보고, 내가 만든 작품에 의미와 이름을 붙여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네 번의 시간이 이용인 분들의 삶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원대한(?) 생각도 했는데 늘 고생하는 내 손과 몸, 그리고 내 작품에 이름과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장년 이용인 분들의 활동이 다운복지관 건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전 워크숍을 통해 알게 되어 야외에서 진행되는 <네모상자 속 나의 몸>이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복지관 인근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공원이란 낭만적으로 우거진 숲길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예술가가 그린 지도를 보고 공원을 걸으며 주변을 관찰하고 보물창기로 찾은 돌멩이와 식물을 이용해 자연물 그림을 그리는 등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중장년 이용인 분들이 각자의 수행 능력을 떠나 호기심 어린 자세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매번 강사인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과정과 결과물들이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느껴진 것들을 색감과 형태로 솔직히 표현해 주셔서 작품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한 번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활동을 힘들어하시기도 했지만 그럴 땐 쉬엄쉬엄 하시라 독려하며 함께 해주는 보조 선생님들이 계셔서 원활히 수업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많은 분들의 마음과 노력으로 진행되었던 수업이었네요. 손과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참여했던, 모두가 진심으로 즐거웠던 시간이었기를 바래 봅니다.

강희

CAN

2024 ARTBUS CANbus

박주영, 신혜정 작가와 함께한 수업이 즐거웠나요?
이름을 쓰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

재미 있었어요.
즐거웠어요.

마지막 필4를 활용해서 손 만드는
활동이 가장 기분이 좋아요.

지금까지 잘 알려주시고 항상
조언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 강희 -
(강희)

김영아

CAN

2024 ARTBUS CANbus

박주영, 신혜정 작가와 함께한 수업이 즐거웠나요?
이름을 쓰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

· 밖에 나간 수업 너무 재미있었어요.
· 책 만드는 것도 (화제) 좋았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사랑 해요 ○ 김영아

김영아

김근영

CAN

2024 ARTBUS CANbus

박주영, 신혜정 작가와 함께한 수업이 즐거웠나요?
이름을 쓰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

산책 중서도 재미있어요

김근영

손

손 네서도

김희라

CAN

2024 ARTBUS CANbus

박주영, 신혜정 작가와 함께한 수업이 즐거웠나요?
이름을 쓰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

산책 간거

기쁘요

미술

수업

나

참고만

문

재미 좋았어요

기분도 화

너무 재미 있었어요

우리 작가님

선생님

김희라

배병희

CAN

2024 ARTBUS CANbus

박주영, 신혜정 작가와 함께한 수업이 즐거웠나요?
이름을 쓰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

배병희

기뻐다 정말 재미있었다

배병희

배병희

최경숙

CAN

2024 ARTBUS CANbus

박주영, 신혜정 작가와 함께한 수업이 즐거웠나요?
이름을 쓰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

지금까지
재미있었어요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어요
^ 도 하고 싶어요.

만드는 작품

손 그리기 가 정말 재밌었어요.

- 최경숙 -

장인화

CAN

2024 ARTBUS CANbus

박주영, 신혜정 작가와 함께한 수업이 즐거웠나요?
이름을 쓰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

장인화

부채 만들기가 재밌었어요
손만드는 것도 좋았어요!

♡

허정미

CAN

2024 ARTBUS CANbus

박주영, 신혜정 작가와 함께한 수업이 즐거웠나요?
이름을 쓰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

허정미
수업을 열심히 했다
오늘도 너무 재미있었다 선생님들과
같이 사랑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선생님 정말 친절하셔서 좋았어요!
손만드는 수업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박주영 Park Jooyoung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주요 개인전

2022 <The Project / Brew the ART>, 클레어스서울 3F 라운지, 서울

2022 <Coming Sky>, 아트비트갤러리, 서울

2021 <바람부는 날>,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성남

2021 <wi__ow>, 갤러리탐 42기 신진작가 개인전 탐앤탐스 역삼 2호점, 서울

2019 <wind, ow>, CICA 미술관, 김포

2018 <바람, 결> 갤러리도스 신관, 서울

주요 단체전

2023 <미기갤러리 9월 기획전>, 미기 갤러리, 서울

2023 <모호한 경계>,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성남

2022 <2022 아트페스타 인 제주>, 산지천 갤러리, 제주

2022 <자연의 경청 나무, 틈, 사이> 온양민속박물관 너와집, 아산

2021 <마스커레이드>,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2021 <이면의 공간> 단원미술관, 안산

수상

2021 제 22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2020 경기문화재단 아트경기 작가 선정

2019 아시아프 우수작가 20인 선정

2019 서정아트센터 작가공모 우수상 수상

2018 제 2회 K Painting 신진작가 공모 당선

작품 소장처

인천지방법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청 박물관과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성남문화재단 성남큐브미술관

신혜정 Shin Hyejung

2009 첼시예술대학교 석사졸업, 런던, 영국

2007 첼시예술대학교 준석사 수료, 런던, 영국

2004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학과, 서울, 한국

주요 개인전

2024 <내 손을 잡아줘>, 시청 시민청 갤러리, 서울

2023 <내 손을 잡아줘>, 삼각산 시민청, 서울

2023 <튀굴, 똥굴, 또로록>, 갤러리 메일란, 서울

2022 <예술가의 놀이터- 튀굴튀굴 공손 연구소>,

DDP 디자인 놀이터 디키디키, 서울

2021 <구르는 몸, 부딪히는 몸, 버티는 몸>, 룬트 갤러리, 서울

2020 <일그러진 얼굴들>, 햇빛이 잘드는 이곳, 청주

주요 단체전 및 퍼포먼스

2023 <원도우24-34 드로잉 스밍>, 갤러리 메일란, 서울

2023 <대구 현대미술제>, 강정보 디아크 광장 및 내부 전시장, 대구

2022 <연동아트 프로젝트>, (구)연동면사무소, 세종

2022 <영등포 타임워프>, 술술 센터, 서울

2022 <예술가의 놀이법>, 수원시립 어린이미술체험관, 경기

2021 <웅크리기, 찌르기, 쓸어내기>, 시대여관, 서울

주요 프로젝트

2023 <돌아온 낭만여행>프로젝트 - 연동면, 세종

2022 프로젝트 <낭만여행>, 연동면, 세종

2019 <낭만여행-소제야로>, 소제동, 대전

2017 프로젝트 <낭만여행>, 대청호 미술관, 청주

2016 프로젝트 <낭만여행>,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레지던시

2019 소제예술창작촌,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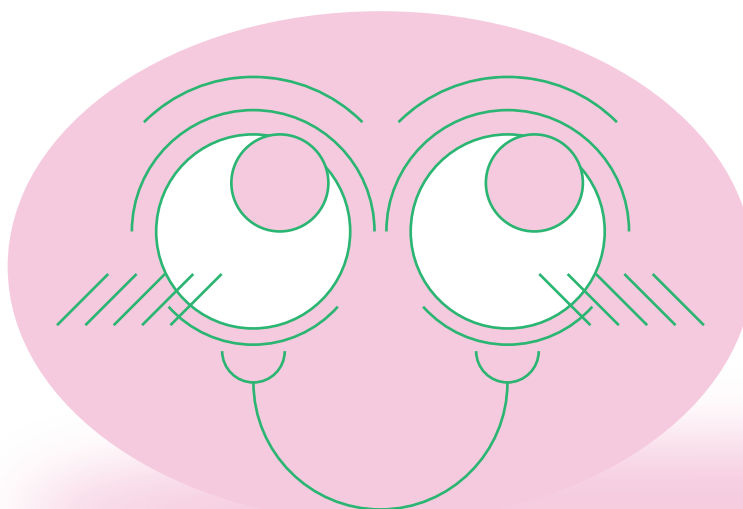
2016~201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다운복지관

다운복지관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만든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산하기관으로 2003년 7월 개관하여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맞춘 치료, 교육, 사회심리, 직업재활, 재가복지, 가족지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인을 중심으로 다운인이 건강한 인간, 높은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운복지관은 다운과 함께 누리는 세상이라는 미션과 함께 이용자가 참여하고 선택하는 복지관,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복지관, 신나는 일터·내 집 같은 복지관, 다운인의 평생을 함께하는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ARTBUS CANbus

총괄

(사) 캔 파운데이션

발행

(사) 캔 파운데이션

총 기획

장문경 (캔 파운데이션 이사장)

편집

(사) 캔 파운데이션

김도연 (캔 파운데이션 실장)

내용/구성

윤화영 에듀케이터

기획 및 진행

송현주 큐레이터

윤화영 에듀케이터

사진

오동환

참여작가

박주영, 신혜정

디자인

파이카

진행보조

김예은, 윤지우, 김한나

글과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후원

(재) 청암문화재단

(재)청암문화재단

지원/협조

다운복지관

CAN Contemporary Art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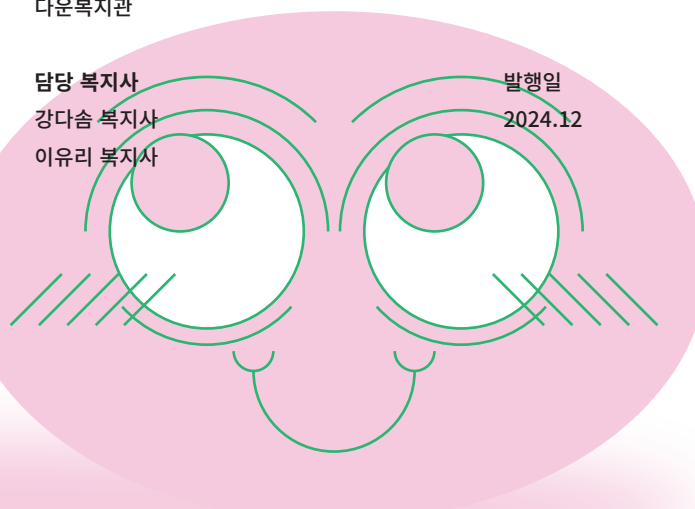
담당 복지사

강다솜 복지사

이유리 복지사

발행일

2024.12



현대미술 작가와 다운복지관이 함께하는
예술체험 프로그램



(재)청암문화재단

CAN Contemporary
Art
Network